

# 이재명 단식 승부수... 오염수·홍범도로 민심 결집 이루나

## 野 3당 2차 범국민대회

### 93개 시민단체 등 5만여명 집회 단식 동력 '민심 결집 여부' 주목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국민항쟁'을 선언하며 단식 투쟁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결단이 과연 민심의 결집을 이끌 것인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에 반발하는 민심의 결집은 이 대표의 단식 투쟁에 있어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시작된 이 대표의 단식은 벌써 4일째 이어졌다. 하지만 제1야당 대표의 단식 투쟁에도 불구하고, 민심의 결집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심의 결집이 폭발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여야 정쟁의 장기화로 민심의 피로도가 심화된 이유도 있지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단식 투쟁과 겹치면서 동력이 떨어진다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단식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에 실망한 민심이 점차 결집되면서 추석 전에 정국의 터닝포인트를 형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野) 3당은 지난 2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며 대야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들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93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과 함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윤석열 정부 규탄 2차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지난달 26일 1차에 이은 2주 연속 대규모 주말 집회였다.

'윤석열 정권 규탄!'이라고 쓰인 손 팻말을 들고

이날 무대에 오른 이 대표는 "외국에 대한민국 영토를 침범하고 해양 주권을 침범하면 당당하게 대통령이 나서서 '이건 아니다, 방류를 중단하라'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하지 않느냐"고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또 "이 역만리 먼 땅에서 대한 독립을 위해 희생한 홍범도 독립 영웅이 강제 이주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고국으로 돌아와 다시 강제 이주를 당해야 하겠느냐"라고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가 꿈꾸는 나라를 비록 이루지는 못했을지라도 나라가 과거로 퇴행하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만 명, 경찰 추산 6000여 명이 참가했다. 지난달 26일 1차 집회와 비슷한 규모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기대만큼은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가 직접 당원들의 참석을 독려하고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들이 합류했는데도 1차 집회 규모를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줄었다는 말까지 나온다.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각 지역위원회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에도 100명 정도를 참석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집회는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와도 확연히 차이가 났다. 이날 교원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0만 명, 경찰 추산 10만 명이 넘는 교사들이 운집했다. 또 광주·전남 지역, 조국 법무부장관 수호 집회 때와 비교해도 참석 인원이 적은 편이다. 2008년 광주병 촛불집회 당시 최대 인원이 운집한 6월 10일에는 경찰 추산 8만 명, 주최 측 추산 70만 명이 모였다. 지난 2019년 9월 28일 조국 법무부장관 수호 관련 집회에 주최 측은 참석 인원을 약 150만 명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는 이번 집회가 무더위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인근에서 열린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윤석열정부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을 감안할 때 성공적이라는 자평을 내놓고 있는지만 민심의 결집이 기대만큼 폭발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추후 장외 집회를 계속할 동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국 지역위원회 차원의 인력 동원도 한계가 있는 현실이다.

이 같은 흐름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 투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심의 결집은 이 대표가 검찰 수사 및 영장 청구에 맞설 수 있는 동력

이 된다는 점에서 출구 전략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정치권에선 여야의 계속되는 정쟁에 민심이 분노를 넘어 아예 절망한 상황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거들된 실정의 여권과 기대할 수 없는 야권의 현실에 현실 정치 참여를 외면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또 이 대표의 단식 투쟁과 사법리스크가 겹치면서 민심 저변에 깔린 분노의 동력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지친 민심이 점차 결집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아직 민심의 결집이 폭발적이지 않지만 민심의 저변에 쌓인 분노를 봐야 한다"며 "민심의 분노는 현재 태풍의 눈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이어지면서 추석 전에 민심의 결집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이재명 "오염수를 처리수라 부르면 핵물질 없어지나"

### 국힘 '오염 처리수' 명칭 변경안 비판... "창씨개명 해괴한 언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여권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ALPS(다핵종제거설비) 처리수를 가져 방류하는 오염수를 '오염 처리수'로 바꿔 부르는 방안에 대해 "오염수를 오염수로 부르지 못하게 창씨개명하는 해괴한 언사"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록위마(指鹿爲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함"이라고 해서 오염수에 들어 있는 오염물질 방사성 물질이 없어지거나 하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핵 오염수에 대한 맹목적 믿음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은 가장 비과학적인 여론 조작 선동"이라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라도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 협약에 정면

으로 위배된다"며 "인공 해양 구조물을 통한 폐기물의 투기를 금지한 런던 의정서에도 마찬가지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나서서 일본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런던협약 87개 당사국(한국 포함)과 런던의정서에만 가입한 앙골라 등 88개국 국가 원수 정부 수반에 친서를 발송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는 4일에 발송될 친서에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멈추고 해양 안전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제사회와 공조해 여론전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

대책위원회'(대책위)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회견에서 "우리의 뜻을 전하고자 유엔인권이사회,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기구에 의원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4일에는 민주당 주최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공동회의가 국회에서 열린다.

민주당에 따르면 회의에는 미국 워싱턴사회적책임의사회 핵무기 철폐 위원회 조셉 박스 공동대표가 미국 측 패널로,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장무후이 교수가 중국 측 패널로 각각 참석한다. 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 마쓰쿠보 하지메 사무국장은 일본 측 패널로 초청됐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와 우 의원을 비롯해 대책위 국제협력본부장인 이용선 의원 등이 참석한 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여야, 12월 9일까지 정기국회 합의

### 내일부터 대정부질문... 다음달 10~27일 국정감사

이번 정기국회는 오는 12월 9일까지 100일간 이어진다.

국민의힘 이상수-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제41회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개회식을 가진 직후, 본회의를 개회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보궐선거 등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대정부질문은 5일(정치), 6일(외교·통일·안보), 7일(경제), 8일(교육·사회·문화) 나흘간 진행된다. 분야별 민주당 6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의원 1명이 질의자로 나선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이날 18일에는 민주당 박광은 원내대표, 20일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나선다.

국정감사 기간은 다음 달 10일부터 27일까지로

정해졌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은 같은 달 31일 본회의서 진행된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이날 21일 열고, 필요시 25일에도 추가로 개최하기로 했다. 여야는 아울러 11월 9·23·30일, 12월 1·8일에도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땅끝농협 농기계서비스센터 임대 안내

전남 해남군 송지면에 위치한 땅끝농협 농기계서비스센터를 아래와 같이 임대하고자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연락바랍니다.

<b>임대시설 개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 소 : 전남 해남군 송지면 달마로 19(미야리 219-10)</li> <li>· 면 적 : 건물(369㎡), 대지(2,584㎡)</li> <li>· 임대시설물 : 목적물 내 건물 및 기계·공구·비품 일체</li> </ul>
<b>임대조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기간 및 임대료 : 상호 협의</li> </ul>
<b>신청자격 및 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술자격법상 농기계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li> <li>- 신용정보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li> <li>- 농기계수리 서비스업 경영자 우대</li> </ul> </li> <li>· 제출서류 : 신분증, 자격증사본, 주민등록등(초)본</li> <li>· 신청방법 : 땅끝농협 총무계로 직접 방문 신청</li> </ul>
<b>문의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땅끝농협 총무계로 문의</li> <li>(전남 해남군 송지면 산정1길 80, ☎ 061-533-2470)</li> </ul>

땅끝농업협동조합

##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b>건물 리모델링</b>	<b>갈라강판 지붕공사</b>
<b>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b>	<b>전원주택신축</b>
<b>공장신축</b>	
<b>징크판넬시공</b>	<b>창호(삿시)교체</b>
<b>농막</b>	<b>옥상스틸방수</b>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향2길3(서향동)